

# 다양한 관직 맡아 정치했지만 승려 본분 잃지 않아

## <46> 희대의 기승 도연(道衍) 선사 요광효(姚廣孝)

명(明) 태조 주원장의 철저한 불교통제, 특히 민중과의 소통을 차단하는 정책은 불교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 생존의 기로에까지 서게 됐다. 종교로서의 불교가 민중과의 소통의 통로가 막히는 것은 마치 물고기에 더 이상 신선한 물을 공급해주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조의 불교통제 정책은 성조(成祖) 영락제(永樂帝)에 이르러 어느 정도 완화됐다. 다시 불교를 보호하는 정책이 나타나 불교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게 된 배후에는 도연(道衍: 1335~1418) 선사라는 희대의 기승(奇僧)의 역할이 있었다.

도연 선사는 결코 환속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거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승관(僧官)'이 아닌 조정의 고관으로서 장기간 관복(冠服)을 입고 조정에 나아가고, 물러나면 바로 승복(緇衣)을 입고서 사찰에 기거하는 특이한 경력을 비롯해 명대의 거사불교에 중요한 작용을 일으켰던 까닭에 중국거사불교에서 도연 선사를 논한다.

도연 선사는 <명사(明史)> 권145에 <요광효전(姚廣孝傳)>으로 입전(入傳)돼 있다. 또한 청대(淸代) 성통(性統)의 <속등정통(續燈正統)> 권15, 십선(十先)의 <속지월록(續指月錄)> 권6 등에 전기가 실려

의 우선세(右善世)를 맡아 전국의 승가를 관리하던 종족(宗?) 선사는 도연 선사의 글을 보고 "이 어찌 석자(釋子)의 글이겠는가!"라고 찬탄했다고 한다.

선사가 승산사(嵩山寺)에 있을 때, 관상에 뛰어난 원공(袁珙) 스님이 "참으로 기이한 승려이다. 눈을 삼각이고, 모습은 마치 병든 호랑이와 같으며, 심성(心性)에 살기가 느껴지니 필시 권모술수에 능할 것이다"라고 평하자 선사는 크게 기뻐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이후 함께 '정난(靖難)의 역(役)'을 통해 주원장의 넷째 아들인 연왕(燕王) 주제(朱棣)를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선사가 주제를 만나게 되는 인연은 주제의 친모인 황후(皇后)가 죽자 황제에게 연왕부(燕王府: 현 北京)로 돌아가 모친의 명복을 비는 축원을 하고자 승록사(僧錄司)에 소속된 고승을 천거해 달라고 청원하면서 시작된다. 선사는 받아들여 눈여겨보던 주제를 찾아가 "연왕 전하께서 신을 지목하신다면, 신은 전하께 흰 모자를 씌워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연왕의 신분에 '흰 모자(白)'를 쓴다면 '황(皇)'자가 되니, 제위에 오르게 돕겠다는 의도임을 알고서 주제는 선사를 지목해 함께 연왕부(燕王府)로 돌아와서 선사는 북경의 경수사(慶壽寺)에 머물며 수시로



그림 · 김홍인

의 관직에 임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명사>의 선사 전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황제가 군막에 모든 무장들을 접했지만, 홀로 도연 선사만이 군사를 일으킬 책략을 제시했다. 이에 황제는 산둥(山東), 하북(河北) 등에서 전쟁을 하기를 3년, 공격할 것이나 지키는 것이냐는 전쟁의 모든 전략, 전술들은 도연 선사가 결정했다. 도연 선사는 일찍이 전진(戰陣)에 나아간 적이 없었지만 황제가 군대를 일으켜 전하를 얻음에 도연 선사의 힘이 가장 크며 논공에서 제일로 대우했다."

이로부터 보자면, 비록 도연 선사는 군대를 직접 진두지휘하지 않았지만, 모든 전략과 전술을 관장했다. 또, 연왕이 황제에 오르는데 가장 큰 공로자로 인정받았음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황제는 도연 선사에게 '광효(廣孝)'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또한 '환속해 머리를 길도록 명했지만, 도연 선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커다란 저택과 미모가 뛰어난 두 명의 궁인을 하사하지만 모두 받지 않았다. 항상 승사(僧寺)에 거주하면서 관복(冠服)을 입고 조정에 나아가고, 물러나면 바로 승복(緇衣)을 입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보자면, 환속하라는 황제의 명령도 어겨 가면서 끝내 승려의 신분을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모순되게도 관직은 결코 반납하지 않았다.

이후, 영락제는 자신의 제위전탈에 대한 합리화와 후세 기록을 염려하여 <태조실록>을 중수(重修)하는데, 감수(監修)를 선사에게 맡기고, 다시 <영락대전>의 찬수(纂修)를 맡긴다. <영락대전>은 경사(經史)집

(經史子集)을 비롯해 천문, 지리, 음악, 의술, 불교, 도가 등의 저서를 수집하여 무려 1만1095책, 2만2937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중국 최초이자 최대의 백과사전이다. <영락대전>의 완성 후, 영락16년(1418년) 도연 선사는 노환으로 세수(世壽) 84세로 입적한다. 영락제는 선사를 조문하기 위해 2일간 조회를 보지 않았다. '공정(恭靖)'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영국공(榮國公)에 봉해졌다.

선사는 만년에 유가의 불교비판에 비판을 해명하기 위한 <도여록(道餘錄)>을 찬술했다. 이외에 <정토간요록(淨土簡要錄)>, <제상선인영(諸上善人咏)> 등의 정토교와 관련된 저술들이 있다.

도연 선사의 일생은 어찌 보면 상당히 모순된 모습을 보여준다. 출가해 승려의 신분으로 반정의 모사를 맡아 성공시켰지만, 환속하라는 황명도 거역하면서 승려의 직분을 유지했다. 그런가 하면 다양한 관직을 맡아 관리로 살면서도 또한 사찰에 머물렀다. 또한 선사는 재물에 대한 욕심도 없어 자신이 받았던 모든 재물을 다 친족과 고향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선사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혹은 '간승(奸僧)'으로 비하하기도 하고, 혹은 승려의 신분보다는 정치가나 병법가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연 선사는 스스로를 분명히 '승려'로서 평가해주시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의미에서 만약 도연 선사가 출현하지 않았다면, 명 태조 주원장의 철저한 불교통제 정책은 지속됐을 것이고, 그렇게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중국불교는 어쩌면 명맥조차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쇠락해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도연 선사의 역할로 말미암아 역사의 요소가 많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명대불교는 사상적으로나 교세적으로나 모두 쇠퇴일로로 걷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연 선사의 불교사상은 어떠한가? 선사의 작품인 <도여록>과 <정토간요록> 등을 통하여 선사의 사상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선사는 <도여록>에서 "세속의 무지한 사람들은 '세간'을 들고서 바로 세간의 생각을 일으키고, '출세간'을 들고서는 바로 출세간의 생각을 일으킨다. 도리어 세간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바로 세간임을 결코 모른다."라고 말하고, "보살이 수행하는 모든 게·정·혜 삼학뿐만 아니라 음(陰)·노(老)·치(癡) 역시 모두 범행(犯行)이 갖추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부터 보자면, 선사의 안목에는 철저하게 대승의 반야사상과 조사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또한 이로부터 어느 정도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선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고 하겠다. 실제로도 선사는 계속 관직을 맡아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했지만, 명대의 대표적인 거사인 이지(李贄) 등과 같은 인물들과 끊임없이 교류함으로써 승려의 본분을 한시도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지 거사는 선사의 <도여록>을 친히 교열했다. 따라서 도연 선사는 비록 거사는 아니지만, 명대의 거사불교와 긴밀한 관계가 있고, 이 또한 중국 거사불교의 또 다른 면모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김진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 불교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도여록' 찬술

## 모순된 삶 살아도 '승려'로 불리길 바래

있다. 그에 따르면, 선사는 본래 대대로 의술을 펼쳤던 유명한 의가(醫家) 출신이지만, 의학에 뜻을 두지 않고서 14세에 묘지암(妙智庵)에서 출가해 범법을 '도연'으로 하고, 자호를 '도허(逃虛)', '독안(獨庵)'이라고 했다. 출가 후 천태학 등 다양한 교의를 습득하고 당시 유명한 도사(道士)인 석응진(席應眞)을 스승으로 삼아 음양(陰陽)의 술법을 배우는 등 불교뿐만 아니라 유·도 양가에도 상당히 정통했다. 선사의 <도여록(道餘錄)> 서문에는 스스로 "내외의 전지를 다양하게 열람해 재식(才識)으로 삼았다"라고 하듯이 다양한 학문에 통달해 당시의 유명한 학자인 왕빈(王賓), 고계(高啓) 등과 밀접하게 교류했고, 송법(宋濂), 소백현(蘇伯衡) 등의 추천을 받기도 했다. 홍무(洪武)년간에 예부(禮部)에서 실시한 '통유서승시(通儒書生試)'에 급제했지만, 선사는 관직에 나가지 않고 다만 '승복'만을 받았다. 당시 승록사(僧錄

왕부를 드나들며 천하를 얻기 위한 준비를 했다. <명사>의 전기에서는 "부중에 출입하면서 행적을 매우 은밀하게 했으며, 때때로 사람들을 물리치고서 긴 시간 동안 논의했다"고 한다.

태조 주원장이 죽고 손자인 주윤문(朱允炆)이 건문제(建文帝)에 오르자 주(周), 상(湘), 대(代), 민(閔) 등의 번왕(藩王)들이 움직이자 도연 선사는 연왕에게도 군대를 일으키라고 권고한다. <명사>의 전기에 따르면, 연왕이 "민심(民心)이 그(건문제)에게 있는데, 어찌할 것인가?"라고 하자 선사는 "신이 천도를 아는데 어찌 민심을 논하십니까?"라고 하자 연왕은 마음을 굳히고 거병했다. 이로부터 이른바 '정난(靖難)의 역(役)'이 시작되고 3년간의 전쟁을 통해 연왕 주제는 성조(成祖) 영락제(永樂帝)에 즉위했다. 영락제는 즉위 후, 도연 선사를 승록사의 좌선세(左善世), 자선대부(資善大夫)와 태조소사(太子少師) 등

|   |   |   |  |   |
|---|---|---|--|---|
| <p><b>불자 정보</b><br/>759호  <br/>TEL 02) 2004-8215(直) 732-1522<br/>FAX 02) 737-0696</p>   | <p><b>포교원(급)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제물포역 앞</li> <li>● 평수: 35평</li> <li>●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li> <li>● 시설비 약간있음</li> </ul> <p><b>010-8549-0159</b></p>  | <p><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남 밀양시 조동면</li> <li>● 법당, 요사채 각각 20평</li> <li>● 슬라브기와, 뒷밭 100평, 총대지 235평, 황토방 5평</li> <li>● 가액: 전세 5,000만원</li> <li>●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주세요</li> <li>● 마을입구, 뒤는 대밭</li> </ul> <p><b>010-5879-7551</b></p>  | <p><b>사찰.암자 터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강원도 횡성 사갯봉</li> <li>● 해발 700m 위치</li> <li>● 田(대지 80평 포함) 850평</li> <li>● 가액: 1억 3천만원</li> </ul> <p><b>011-217-5349 (소유주)</b></p>  | <p><b>포교원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 목동 4거리</li> <li>● 평수: 100평</li> <li>● 다실, 주지실, 법당, 공양간, 객실2개, 완벽한 시설</li> <li>●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li> <li>● 가액: 답사 후 절충</li> </ul> <p><b>016-358-8084 2652-0290</b></p>  |
| <p><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남 고성</li> <li>● 약 900평</li> <li>● 법당, 요사채</li> <li>● 산세 수려하고 물도 좋음</li> <li>● 사정상 급 안내</li> <li>● 가액: 1억 8천만원</li> </ul> <p><b>055)672-0340</b></p>   | <p><b>포교원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대구시 중구 대구역 지하철 1분거리</li> <li>● 번개시장, 교통시장, 귀금속거리 중앙</li> <li>● 동성로 입구에 위치, 포교회적</li> <li>● 4층 약 30평</li> <li>● 가액: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li> <li>● 시설비 800만원</li> </ul> <p><b>010-2446-2626</b></p> | <p><b>포교원(급)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북 칠곡 약북기차역 맞은편</li> <li>● 평수: 약 45평 (시설 완비, 공기 청정) 법당, 삼존불방 2주방, 화장실</li> <li>● 2층건물 중 2층(옥상사용)</li> <li>● 보증금 1,500만원 / 월 10만원 시설비 1,300만원</li> </ul> <p><b>054)974-0307 017-217-1919</b></p>   | <p><b>포교원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대구 동성로 도심포교당으로 불교대학 운영 최적지임</li> <li>● 당포함 전체평수 50평</li> <li>●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170만원</li> <li>● 시설비(비품포함) 3천 5백만원</li> </ul> <p><b>010-8869-8965</b></p>  | <p><b>사찰(종무원)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대구 중심 요지(지하철역)</li> <li>● 건물전체(3층), 주차장 등</li> <li>● 포교, 교육, 종무원 적지</li> <li>● 최고시설(법당, 종무원, 후원, 난방 등)</li> <li>● 전체 7,000만원</li> <li>● 꼭 필요한 분만 연락</li> </ul> <p><b>010-6780-6271</b></p>   |
| <p><b>포교원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남 양산 남부 시장부근</li> <li>● 평수 54평(현 법회중)</li> <li>● 4층건물 중 3층(편리비 無)</li> <li>● 시설(법당, 법당1실, 방 4개)</li> <li>●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35만원(월 전세 가능)</li> <li>● 시설비 저렴하게 보시</li> </ul> <p><b>055)372-3563 010-2553-8827</b></p> | <p><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전남 장흥</li> <li>● 법당 20평, 요사채 25평</li> <li>●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전체 동기와단청</li> <li>●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li> <li>● 가액: 1억 5천만원 (용자 3천 포함)</li> </ul> <p><b>018-603-1456</b></p>            | <p><b>토굴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영천에서 경주방향 15분거리 (경주 IC 영천 IC 15분 내)</li> <li>● 대지 120평 작은 입법당</li> <li>● 구옥(홍지)3칸, 연탄, 기름보일러 겸용 새로 설치, 10년된 토굴</li> <li>● 비구니 선객이 편히 지낼수 있고 건강을 살릴 수 있고, 조용해 정진할수 있는 아늑한 토굴</li> <li>● 교통편리(KTX)10분거리, 내린 개통 신경주역</li> <li>● 가액: 5천만원</li> </ul> <p><b>010-6717-1767</b></p> | <p><b>포교원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울산시 북구 호계동 신시가지 2차세대 아파트단지 들어섬</li> <li>● 2층 중 2층 ● 평수: 총 60평 중</li> <li>● 법당 25평 방 3칸 방 1주방 1거실, 화장실, 에어컨 2개</li> <li>● 삼존불 모셔져 있고 탕화 있음</li> <li>●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4천만원 중 600만원만 받겠슴</li> </ul> <p><b>010-6553-2828</b></p> | <p><b>월출산 토굴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월출산이 바라보이는 수려한 동네위에 한가한 곳</li> <li>● 평수: 대지 250평 전 236 총 486평 지임</li> <li>● 벽돌슬라브 건물 약 40평 입법당, 창고 10평</li> <li>● 남향 주차장, 텃밭, 잔디정원과 연못이 있음</li> <li>● 읍내 7분거리 국도 2분거리</li> <li>● 가액: 1억 3천만원</li> </ul> <p><b>061)471-9688 010-3558-1674</b></p> |

## 회원 모집

**세계불교우주대원종단발전총연합회**

◆ 회원종단 : 한국불교일대원조계종 대한불교우주대법람종

**세계불교우주대원종단발전총연합회는 종단연합단체입니다.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 함께하실 회원종단 및 종도를 모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입회(중)서류**

- 입회(중) 신청서 1부
- 사찰 사암 등록증 1부
- 승려(법사) 등록원부 1부
- 사진 3매
- 기타 서류

**특전**

각 회원종단의 화합과 교류를 목적으로 하여 사찰 사암 개인 재산은 협회 및 회원 종단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세계불교우주대원종단발전총연합회 회장 도인**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4-8  
전화 031)952-7045, 4077 / 011-286-2439